

미국농업 자조금 제도

- 계육소비 촉진



정찬진 교수
Oklahoma 주립대학

미국 축산물 가운데 전형적인 자조금제도가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일한 부문은 계육산업이다. 그것은 산업특성상 소비촉진방식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전 산업이 자조금을 모아 계육소비를 위한 상품광고(commodity advertising) 또는 일반홍보(generic promotion)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계육생산자(도계, 가공업자)가 직접 소비자에 대한 상표촉진(brand promotion)을 하고 있다.

자조금 관련 소비홍보 방식은 크게 2단계로 나누어 먼저 그 상품(계육)에 대한 일반홍보(제품, 구입, 위생 및 안정성, 용도, 가격 등 소비 정보 제공)에 의하여 계육소비의 저변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상표(각 업체상품)를 광고하여 전체시장의 소비규모를 늘려가게 된다.

그러나 미국 계육산업의 경우는 계육협회(National Chicken Council, NCC)가 1단계 역할을 간략하게 총체적으로 수행하고 NCC 회원인 계육생산자(계열주체)가 2단계 기능을 전적으로 맡는다. 산업구조가 육계생산자(broiler grower)가 아닌 계육생산자(chicken

producer/processor)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는 이유에서이다.

미국의 계육산업은 모든 농업부문 가운데 가장 먼저 기업경영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바로 소비자 지향적 산업(consumer oriented industry)으로 구조 조정된 것이다. 1950년대 이래 종계에서부터 육계사육, 도계, 계육생산 및 유통 등 10여 가지 사업을 수직으로 통합 경영하는 계열화체계(integrated production and marketing system)로 개편하여 이제는 99%의 계육이 이런 방식으로 생산, 유통, 소비되고 있다. 즉 농장안(on-farm)의 일은 농민(사육주체), 농장밖(off-farm)의 일은 기업(계열주체 : 사기업 또는 협동조합)이 상호 계약하여 경영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농민이 사육한 육계는 계육생산의 중간재(거래상품이 아님)이고 기업이 도계, 가공한 가식성 계육이 비로소 소비상품이 되고 있다. 생산의 개념이 농장에서 공장단계로 바뀐 것이다.

자조금은 농산물(상품) 생산자인 농민이 자기 생산품을 판매할 때 그 상품대전에 자진부

과, 수급하는 원칙에서 출발했다. 그런데 미국 계육산업은 상품생산자가 계약농민이 아닌 계열주체이고, 또 계열주체는 각자의 상표선전을 통한 소비촉진을 하고 있다. 농민은 상품소유자로 육계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에 따라 사육자 보수(grower payment)를 받는다.

이런 상황에서는 계육생산자인 계열주체가 자조금을 별도로 각출하여 일반 홍보할 필요가 없게 된다. 계열주체의 상표홍보로 통상적인 2단계의 소비촉진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 계육산업의 특성적 발전과정에서 1954년에 창설된 육계협회(National Broiler Council)는 자연히 그 명칭을 계육협회(NCC)로 바꾸었고, 오늘날 유통되는 계육의 95%는 상표를 갖고 있다. 그동안 적색육에서 백색육(white meat)으로 소비패턴을 변화시킨 데는 계열체계, 상표선전, 계육협회 등 통합활

동의 효과가 지대했다.

그 결과로 지난 40년에 걸쳐 1인당 소비가 우육과 돈육이 각각 20%, 15% 감소한 데 비해 계육은 무려 3배가 늘어 현재 우육 30kg, 돈육 23kg, 계육 40kg의 소비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수출도 전 생산의 1.5%에서 15%로 증가, 매년 20억불을 벌어들인다.

계열주체, 유통업체, 연관산업 등을 회원으로 하는 계육협회(NCC)는 계육산업 관련 대정부, 대소비자 및 공익, 사익에 걸쳐 전 분야를 총괄하는 협의체로 8개 상임위원회와 11명의 전담직원을 두고 있다. 1998년부터 HACCP 착수, 최근에는 AI 공동대처 등 시의적절한 대응뿐 아니라 전국계육요리경진(national chicken cooking contest)과 “9월은 닭고기 먹는 달(September is National Chicken Month)”이라는 소비촉진 행사를 주도하기도 한다. 

